

생산일 : 2000.12.11

## 報道資料

이 자료는 2000년 12월 11일 10:00부터  
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題 日 : 재경부장관의 신용보증기금 방문

### 主要內容

- 재경부장관은 12.11일(월) 오전에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여 기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,
- 앞으로도 신용보증의 확대 공급을 통해 기업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함으로써 당면한 금융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음

별첨 : 재경부장관 당부말씀 1부

보도자료 생산 :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(☎ 500-5341~3)

(과장 : 최 중 경, 사무관 : 한 승우)

재정경제부 공보관실(☎ 500-5056)

22

## 당부 말씀

- 최근 자금시장은 회사채·CP시장의 위축, 증시침체로 인해 기업의 직접금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며,
  - 상호신용금고등의 금융사고로 지역금융이 위축되는 가운데
  - 은행은 11월중 8조원의 수신증가에도 불구하고 구조 조정 및 연말 BIS비율 준수등을 앞두고 보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음
    - \* 11월중 중소기업 대출은 견조한 증가세(+1조원)를 보이고 있으나 대기업 대출은 감소(-0.1조원)
- 따라서 기업자금사정이 연말·연시의 자금수요와 더불어 악화될 가능성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며,
  - 신용보완 기능을 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함
- 신용보증기금은 99.8월 도입한 Primary CBO에 대한 보증을 통해 약 6조원 수준의 회사채발행을 지원하여 금년 하반기 신용경색 해소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만,

- 앞으로도 중견대기업의 원활한 회사채 차환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Primary CBO 제도가 보다 편리한 제도가 되도록 수요자 입장에서의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
  - 기업별, 계열별 한도의 신축적 운용, 보증비율의 상향조정등 기조치 내용은 Primary CBO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조치였다고 평가함
- 또한, 기업에 대한 신규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주채권 은행이 구성한 신규대출 pool에 신용보증기금이 부분보증하는 대출채권 담보부증권(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, CLO) 제도를 새로이 도입한 것도 중요한 진전사항이라고 보며
- 신용도가 낮은 기업, 특히 은행이 회생가능하다고 판정한 235개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
- 신용보증기관(신보,기보)은 12월중 3.5조원 수준의 신용보증을 공급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바,
- 연말·연시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기 바라며, 내년에도 신용보증 공급규모의 획기적 확충, 새로운 보증상품 개발 등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
- 정부도 신용보증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